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 :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윤 명 숙⁺

(전북대학교)

채 완 순

(전북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도박중독자들의 회복과정에 대한 실제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은 어떠한가?’의 연구문제를 가지고,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라북도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도박중독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였다. 연구결과 총 97개의 개념과 28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6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 하였다. 회복과정의 핵심범주는 ‘대박의 꿈을 포기하고 자유로워지기’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과 유형 등을 밝힘으로써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에 대한 실제적 이론 구축 및 정책적, 임상적 개입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도박중독, 회복과정, 근거이론, 질적 연구

1. 서 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은 즐거움이나 흥미, 사회적 여흥 등의 목적으로 도박을 해왔다. 그러나 도박의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역기능으로서 통제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적,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근래에 우리나라 사행산업¹⁾의 급속

⁺ 주저자

1) 정부가 감독하는 사행산업의 종류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포토)이다.

한 성장으로 인해 도박관련 심리사회적 문제와 가족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규모는 2000년 6조 6,977억 원에서 2009년 16조 5,000억 원으로 사행산업의 매출이 무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2009년 한 해 동안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을 제외한 사행산업 총 이용자 수는 3,925만 명으로 2008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사행산업 시장규모는 합법 시장의 약 5배인 8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행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외국의 선례와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접근성을 증가시켜서 도박중독의 유병률을 증가시키게 된다(Shaffer, Hall, and Vander Bilt, 1999; Jacques, Ladouceur, and Ferland, 20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도박중독 유병률은 9.5%(CPGI 사용)로 19세 이상 성인 인구기준으로 약 35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병률은 평균 4%대인 해외 도박중독 유병률과 비교할 때 세계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의 주요한 지표인 '상습 도박자 검거현황'에 따르면(경찰청, 2010), 검거된 상습도박자는 2006년 1, 484명에서 2007년 1, 948명, 2008년 2, 081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박은 위험요소가 개입되고 돈이나 재산 혹은 거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물건을 승부하며, 적어도 양자가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고 승부나 내기와 관계가 깊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 도박자가 자신의 도박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가족관계의 붕괴, 재산탕진 등 사회문화적 비용 손실, 자살·타살 및 사회적 범죄 증가 등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킨다(이재훈, 2003; Lorenz and Shuttleworth, 1983; Leiser and Rosenthal, 1991; Blaszczynski and McConaghy, 1994).

최근 들어 국내에서 도박중독문제의 원인과 대책, 실태와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선행 도박중독 연구들은 도박중독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이홍표·김대진·성상경·양익홍·고효진, 2000; 김교현, 2003; 이민규·김교현·김정남, 2003; 이홍표, 2003; 이인혜, 2004; 손덕순·정선영, 2007), 도박중독자의 단도박 관련 요인 및 중독과정에 대한 연구(김정연, 2005; 김영훈·이영호, 2006; 송진아, 2009)와 도박중독 척도개발 관련 연구(최완철·김경빈·오동열·이태경, 2001; 김교현, 2003; 김영훈·이영호, 2004)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다수가 양적연구이며 도박중독의 실태와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도박중독자가 도박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는 실제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최근 까지 국내외 모두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자의 회복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도박중독자들의 회복과정에 관한 연구는 외국연구논문 역시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Koski-Jännes and Turner, 1999; Larkin and Griffiths, 2002; Grant, 2007; Avery and Davis, 2008). 또한 그동안 진행된 소수의 중독과정연구(Custer, 1984; Lesieur and Rosenthal, 1991)들도 도박에 중독되어가는 과정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도박중독에서 벗어나는 회복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모든 중독현상이 과정적이고 진행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박중독자의 회복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박중독자들이 회복하는 과정을 상황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이들이 어떻게 도박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그 대처전략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써 회복과정에 대한 특수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이론을 개발할 수 있고, 향후 도박중독자들의 회복과정 개입에

필요한 실천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은 어떠한가?”이다.

2. 문헌고찰

1) 도박중독의 특성과 문제점

도박중독은 도박관련 문제의 특성과 범위, 심각성 정도에 따라 병적도박(pathological gambling), 문제성도박(problem gambling), 강박적 도박(compulsive gambling)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정신건강전문가들이 도박중독의 준거로 주로 사용하는 DSM-IV-T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에서는 “병적도박”을 충동장애로 분류하고, 약물중독과 같이 “도박에 사용하는 돈의 증가, 몰입, 반복적으로 중단하려는 노력의 실패” 등 10가지 범주 중 5가지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도박중독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문제성도박”은 DSM-IV-TR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10가지 범주 중 1 또는 2가지 범주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도박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를 경험하고 있으나 아직 병적도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중독은 대상에 대한 강박적 충동(compulsion), 대상물에 대한 조절능력의 상실(loss of control)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동이나 사용이라는 특성을 가진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Coombs, 2004). 의료모델의 영향을 받은 많은 도박중독 문헌들에서는 도박중독을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중독과 같이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진행성 질병’으로 간주한다. 도박중독과 알코올중독은 특정대상이나 행동에 대해 통제력을 상실하는 중독성 질환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박중독자의 경우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자들과 비교할 때 치료율이 더 낮으며, 문제성 도박자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회복한 사람들로 간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bbot, Williams, and Volberg, 1999; Hodgins and El -Guebaly, 2000).

도박을 하게 되는 동기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도박이 흥미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다(Boyd, 1976). 다른 중독들과 구분되는 도박중독의 고유한 동기는 돈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갈망이다. 특히 도박중독자들은 금전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도박에서 따는 것이며 언제든지 자신이 도박에서 큰돈을 딸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Custer, 1984; Herscovitch, 1999). 도박을 하게 되는 또 다른 동기들은 정서적 흥분, 자극 추구(Brown, 1986; Jacob et al., 1987)로 사람들은 각성수준이 증가하면 더 흥분하여 습관적으로 도박에 탐닉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흥표(2003: 183-184)의 연구에 따르면 금전동기와 흥분 동기는 도박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하는 주요한 동기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적도박자의 경우는 순수한 재미나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 회피목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도박에 개입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결과(이민규 외, 2003: 407-409), 도박중독자는 도박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비중독 도박자에 비해 도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도박의 접근용이성, 도박 습관, 도박 의도, 도박 동기, 주변사람들의 도박 정도, 우울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박중독자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즐기기 위해 도박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흥분과 스릴을 즐기며, 돈을 따기 위한 목적을 위해 도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우울, 자살 시도, 음주, 흡연, 과식 및 충동적인 낭비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훈, 2003: 손덕순·정선영, 2007; Lorenz and Shuttleworth, 1983; Leiser and Rosenthal, 1991). 도박중독자들은 도박 무경험자나 비중독 도박자들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고, 담배와 알코올의 사용정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민규 외, 2003). 또한 약물중독문제는 문제성도박이나 병적도박의 진행과 공통적으로 연관된 가장 높은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와 임상집단 모두 병적도박자들 사이의 약물남용 평생유병률이 약 25-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ockford and El-Guebaly, 1998).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결과 문제성도박자들은 비도박자들에 비해 우울증, 정신분열병, 알코올중독, 반사회성 인격 장애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최소한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unningham-Williams, Cottler, Compton, and Spitznagel, 1998). 도박의 또 다른 중요특성 중 하나는 도박중독자들이 도박으로 인한 재산의 탕진, 도박 빚 등으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기, 횡령, 절도, 위조,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laszczynski and McConaghy, 1994).

도박중독자 가족들의 경우 재정적, 신체적, 정서적인 어려움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문제성도박자들의 경우 도박가족력을 가진 경우가 3배-8배 정도 높았고, 대학생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도박중독가족력이 대학생의 도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Winter, Bengston, Dorr, and Stinchfield, 1998). Lorenz 와 Shuttleworth(1993)의 연구에 따르면 병적도박자의 배우자 중 50%, 자녀들 중 10%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자의 도박 빚을 가족들이 대신 갚아 주는 경우가 많고, 빚을 대신 갚아주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가족전체의 경제적 파탄과 정서적 단절을 경험 하고 도박으로 인한 거짓말, 배신감이나 무력감, 절망감으로 인한 이혼이나 자살, 혈연관계의 포기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진현, 2002; Lorenz and Yafee, 1986; Abbott, Cramer, and Sherrets, 1995). 손덕순과 정선영의 연구(2007: 396)에서도 도박위험집단과 문제성 집단의 경우에 도박으로 인해 가족과 좋지 않은 관계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병적도박집단의 경우에는 가족과 좋지 않은 관계가 30%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도박중독정도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도박중독 회복관련 요인

성공적인 회복이란 단순한 중독행동의 중단만이 아닌 긍정적인 행동유형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기술과 생활패턴의 발달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이 매일 매일의 일상적인 활동들에 통합되는 것이 재발예방의 핵심이다(Brownell, Marlatt, Lichenstein, and Wilson, 1986). 즉 중독으로 부터의 회

복과정(recovering process)은 단계별 과업을 가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삶의 재조직과 재적응을 포함하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과정이다(윤명숙, 2003). 포괄적인 도박중독치료는 급성개입, 재활, 유지의 세 단계를 거치며, 치료에 우월한 단일 치료방법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병적도박자의 단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에 따르면(김영훈·이영호, 2006: 706-707), 단도박 실패 및 도박중단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표현적 가정환경, 도박욕구, 사고 동기, 도박심각도, 도박행동변화 과정-의식적 회피 갈등적 가정환경, 도박 행동변화 과정-도박행위결과에 대한 재평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발적 단도박 집단은 단도박 실패집단 및 단도박 성공집단에 비해 가정 내 갈등요소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도박행동변화가 더 낮게 나타났다. 즉 자발적 단도박 집단이 치료받은 집단보다 자기 스스로 도박문제를 조절하려는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성도박자들의 회복과정연구(Toneatto, Cunningham, Hodgins, Adams, Turner, and Koski-Jännes, 2008:115)에 따르면, 치료받고 회복중인 도박중독자집단의 경우 '바다를 경험한 것'과 '자아개념의 갈등'이 도박 중단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받지 않고 회복한 도박중독자들의 경우도 주요 이유가 '자아상 또는 자아개념의 위기'로 나타났고, 두 집단 모두 '도박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 '다른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음'도 도박중단의 부수적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자들이 도박중단 후 회복을 위해 사용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은 도박장소의 회피, 새로운 생활유형 습득, 돈에 대한 접근성 감소시키기, 다른 사람에게 도박충동을 말하기, 도박과 관련된 부정적인 결과들을 기억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회복중인 도박중독자들은 일반적으로 도박자극의 통제, 도박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장소 제한, 사회적지지망 구축, 도박을 할 수 없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실용적이고 문제에 초점을 둔, 인지행동적인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dgins and El-Guebaly, 2000; Hodgins, 2001). 도박중독자들이 중독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운동이나 취미생활, 종교생활 등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26.1%로 가장 많았고, 도박장출입을 자제하거나 도박관련자들과의 접촉 회피 25.0%, 단도박 모임(Gamblers Anonymous: GA)참여 13.5%, 병원에 입원하거나 약물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하는 경우 11.5%,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4.2%인 것으로 나타났다(손덕순·정선영, 2007: 392-393). 6개월 이상 도박을 중단한 강박적 여성중독자들 13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Avery and Davis, 2008: 178-179), 도박을 중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울감, 타락한 느낌, 절망감을 경험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한 관계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금전적인 빚, 자살생각 등의 순으로 중단의 사유를 제시하였다.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은 수가 최소한 1회 이상의 단도박 모임(GA)참석을 꼽았으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 단도박 모임이나 전문적 도움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회복하기'순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자가 사회적이고 여가선용적인 도박을 하는 상태로 돌아가거나 그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 근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도박중독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Grant, 2007; Avery and Davis, 2008), 중독의 심각성(Shaffer et al., 1999),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된 형사사건, 가족의 태도, 단도박 모임(Yaffee, Lorenz, and Politzer, 1993) 등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단도박 모임(GA)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Stewart and Brown, 1988), 처음 참석한 후 1년이 지난 단도박 모임 회원들 중 단 8%만이 완전히

도박을 중단하였으며, 2년이 지난 회원들 중에는 단 7%만이 완전히 도박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도박 모임 같은 자조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도박중독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험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Rosecrance, 1988). 도박중독치료효과성을 살펴본 연구결과(Lesieur and Bloom, 1991; Stinchfield and Winters, 1996), 치료 후 6개월에서 1년 이후 도박을 완전히 중단한 비율이 대략 50%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들(Toneatto and Ladouceur, 2003; Toneatto and Miller, 2004)에서 나타난 결론은, 공식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는 많은 병적 도박자들의 회복을 위해 대안적인 경로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인 접근방법은 공식적인 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 않지만 치료에 관심은 가지고 있는 많은 도박중독자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알코올 및 약물중독 문제를 가진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식적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이 회복된 것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들이 증가하고 있다(Klingemann, 1992; Stewart, 1999, Cunningham, 2000; Sobell, Ellingstad, and Sobell, 2000). 요약하면 도박중독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 우울, 자살생각, 범죄, 가족관계, 도박중독치료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전라북도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도박중독 경험자 7명이었다. 이들은 주로 화투나 카드 도박을 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도박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2세이고 도박 기간은 평균 10여년 이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은 근거이론의 이론적 표본추출방법(theoretical sampling)을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표집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Strauss and Corbin, 1990). 아직까지 우리나라 도박중독치료센터가 매우 극소수인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찰서, 지역사회복지관,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소개를 받은 도박중독자 중 회복과정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눈덩이 표집방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확대하였다. 도박중독자의 진단 기준은 DSM-IV-TR의 도박중독의 10가지 기준 중 5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서 도박을 중단한지 1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를 주요 기준으로 면접에서 확인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인터뷰 전에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절차, 사후 익명성 및 연구 철회 등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참여자가 연구 참여를 자의적으로 희망한 경우 연구 목적 외에 인터뷰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녹음기 사용에 대해서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Strauss and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론적 민감성²⁾을 가지고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범주들이 포화될 때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참여관찰, 심층면접 등이었다. 연구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중독실천현장에서 일한 전문적 경험을 통해 높은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 참여자로부터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고 면담과정을 녹음한 뒤 그 내용을 녹취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1-2회, 1회 평균 2시간 정도 면담 하였으며 면담장소는 찾집의 방을 예약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는 장소로 택하였다. 연구 질문은 반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의 신뢰성이다. 질적 연구의 엄격성이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유태균 역, 2001). 질적 조사의 엄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연구대상의 반응성, 연구자의 편견, 연구대상자의 편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 다원화,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 예외적 사례분석(negative case), 감사자료 남기기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 엄격성을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는 다원화, 동료 집단의 조언 및 지지, 연구 참여자를 통한 재확인, 감사자료 남기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출처를 통한 다원화를 사용하여 도박중독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연구결과 제시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교수 2인에게서 조언과 지지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 2명에게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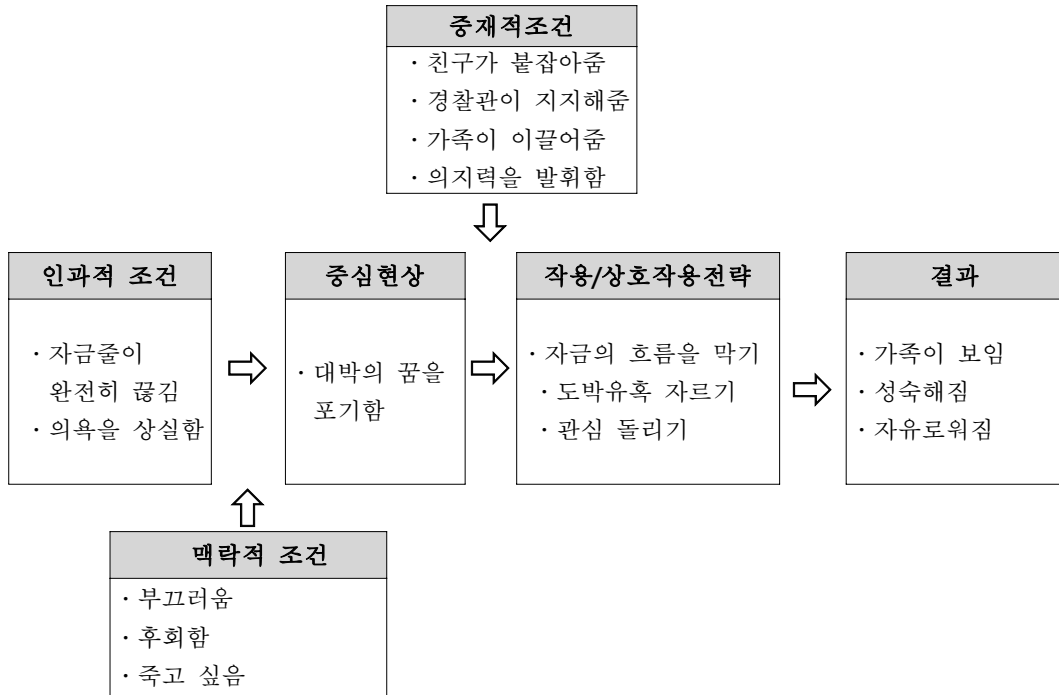
4. 연구결과

1)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연구 참여자들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97개의 개념들이 나타났다. 이를 다시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유목화한 결과 ‘자금줄이 완전히 끊김’ 등 28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부록】. 연구 참여자

2) 이론적 민감성은 연구자가 회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료를 비교하면서 자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인식하고 이것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자질 및 능력을 말한다(Strauss and Corbin, 1990).

들이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1>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도박중독자들이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대한 인과적 조건은 자금이 완전히 끊기고 도박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님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돈을 잃을 때마다 그리고 도박관련 TV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후회하며 다시는 안할 것을 다짐하기도 한다. 또한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우울해지고 결국 자살을 꿈꾸기도 한다. 이러한 인과적, 맥락적 조건 속에서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대한 중심현상은 '도박의 꿈을 포기함'으로 확인되었다. 상호전략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중재조건으로 외적으로는 개인, 가족 및 친구, 국가 등의 도움을 받았으며 내적으로는 잠재된 자신의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금의 흐름을 막고, 도박유혹을 자르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무관심했던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이 한층 성숙해졌음을 느끼고, 이제는 도박을 절제할 수 있어 도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조건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금이 완전히 끊김', '의욕을 상실함'이 인과적 조건으로 분석되었다.

① 자금이 완전히 끊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금과 남한테 빌린 것 까지 모두 다 도박으로 날리고 빈털터리가 된다. 그러나 대박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돈을 구하려고 혈안이 된다. 연구 참여자1, 4, 6의 경우 자금이 완전히 끊김으로서 어쩔 수 없이 대박의 꿈을 잠시 접을 수밖에 없었다.

맨 날 도박이나 하고 나 같은 경우는 생활이 안돼요. 우리 애들 데리고.. 우리 집 외풍이 세거든. 보일러 돈을 못 내고 냉방에서 잤어요. 냉방에서 보일러를 때도 춥거든요. 허덕이는 것을 굉장히 오랬어요(4).

모든 재산이 다 털려야 끝나요. 그것도 남의 것 까지 빌려서. 도박을 그만두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5).

② 의욕을 상실함

연구 참여자들은 절대 피하고 싶었던 이혼, 전 재산 탕진, 건강의 악화 등 평소 자신이 소중히 했던 것들을 다 잃게 됨으로써 그리고 동료 도박자들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박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저는 이혼당하고 1년은 너무도 힘들어서 그런 의욕 자체가 없었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도박을 하는데 힘이 없었어요. 이혼이 너무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홀로 저희를 키우셨거든요. 애들한테는 제가 겪은 아픔을 절대 되풀이 하지 말아야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혼만은 피해야지하고 생각했었거든요(1).

서울 아파트 날려버리고.. 그때 후회를 많이 했어요. 6년간 노름을 안했어요(6).

얼마 전에 죽은 선배가 있어요. 암 걸려서 죽었는데.. 병문안 갔을 때 마지막 한 말이 도박하지 마라 그랬어요. 진짜 화투 만지지 마라. 그 말이 진짜 와 닿더라고요. 만지면 내 인생도 저렇게 될 것 뻔히 아는데... 내가 그 뒤로는 안 만졌지요(6).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장으로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취해지는 일련의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끄러움’, ‘후회함’, ‘죽고 싶음’이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① 부끄러움

연구 참여자들은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친구를 보는 순간 너무 창피했고,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과 부인과 자주 다투고 부인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경찰서를 갔는데 평소 어울리던 친구들이 경찰에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후배 경찰관 불러내서 친구한테 니들이 함부로 하지 말고 정중하게 대해줘라 했을 때 친구한테 너무 미안했구요. 저 자신이 너무 창피했어요. 처음으로 죄인 신분으로 경찰서 가 봤는데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구요. 그래서 나와서는 한 동안 쳐다도 안 봤죠. 상가 집에 가도 쳐다도 안 보고 몇 년간 안했어요(1).

② 후회함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판에서 큰돈을 잃을 때마다 후회하며 다시는 안하기로 맹세한다. TV에서 도박자들의 피폐해진 모습을 보면서 절대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2천 만 원 잃고 3천 만 원 빚이 졌어요. 우리 안식구한테 얘기를 했죠. 자꾸 빚을 독촉하니까. 한번 만 갚아주라. 다시는 안 할 란다. 각서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되도록 안 갈려고 노력을 했죠(5).

③ 죽고 싶음

연구 참여자들은 돈을 다 잃고 빚까지 떠안은 다음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낸다. 결국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나 하나 사라지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 도피해 있는 동안 부인이 빚쟁이들로부터 핍박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빚쟁이들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울한 증상 많이 있었어요. 2천만 잃고 3천만 원 빚을 지니까 우울하더라고요.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5).

도박하다 돈 잃었으니까 나만 없어서 버리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닷가도 가보고, 산에 올라가서 몇 번 죽으려고도 해봤어요(6).

(3) 중심현상

중심현상이란 참여자가 일련의 전략을 통해 조절하거나 해결하려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준다(Strauss and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도박 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의 중심현상은 '대박의 꿈을 포기함'으로 나타났다.

대박의 꿈을 포기함

연구 참여자3은 도박으로 7억 정도 잃었다. 하루저녁에 3-4천만 원을 잃기도 하였는데 어느 날 사기도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 깨달은 후 다시는 큰 도박에 끼지 않게 된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을 하는 동안 거의 돈을 딸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게 되면서 대박의 꿈을 접기 시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경찰에 연루되면 명단에 남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 발붙일 곳을 잃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큰 노름에서 돈을 떼다.

팔에 엮어진 카드가 들어있어요. 기계가 들어있어요. 놀음시작하고 12년 지난 뒤에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도둑놈의 새끼들. 내가 병신이지. 당 한 놈이 병신이지. 당한 놈이 병신이지. 그리고 나는 진짜 안하고 싶었어요(6).

제가 한 7억 가까이 도박으로 날렸어요. 아~이건 아니다. 100번 하면 100번 다 깨진다. 내가 그걸 알았을 때 하겠느냐고요(3).

학교(징역)로 가야 끝나는데, 징역 갔다 와 가지고 노름하는 사람 봤어요? 안간 단 말여. 경찰서 갔다 오면 쪽팔리잖아요(6).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을 말하며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 속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범주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가 붙잡아줌’, ‘경찰이 지지해줌’, ‘가족이 이끌어줌’, ‘의지력을 발휘함’ 등의 중재적 조건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친구가 붙잡아줌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친구가 도박하는 사람들이어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1은 이혼과 피폐해진 생활에서 친구의 도움을 받음으로서 힘들었던 생활을 극복할 수 있었다.

스스로 끊기보다는 주변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산행을 하게끔 도와준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혼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럴 때 친구가 점심 먹자고 해서 국밥집에 갔어요. 제가 인제 국물을 떴는데 손을 떨어졌어요. 아주 피폐해질 때죠. 물리치료실 근무하는 친구거든요. 00사를 같이 가볍게 다녔어요. 점심시간에 그러다가 주변 산을 다녔어요. 그 친구가 제 도시락 싸오고, 그렇게 극복이 됐어요. 친구 도움으로(1).

② 경찰관이 지지해줌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엔 경찰관이 두려운 존재였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관리의 대상이 된 이후에는 경찰관의 인간적인 접근에 마음을 연다. 경찰관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며 가능한 도박을 자제하려고 했고 경찰관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 형님(경찰)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한참동안 도박에 미쳐가지고 걸려가지고 수배령 내려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같이 놀다보면 경찰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해결해라. 빨리 벌금 내버려라 그래요(6).

③ 가족이 이끌어줌

연구 참여자들에게 한결같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부인과 싸움도 많이 하지만 정작 힘들 때 부인이 옆에서 도움을 주어 빠져나오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반성하고 있을 때 부인이 끌어 안아주면 더 많은 반성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6의 경우 빚에 쫓겨 자살하려고 마음 먹고 마지막으로 자식 얼굴 한 번 보러 집에 들렀다가 자살하고 싶은 맘을 접게 되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바닥까지 갔어요. 절벽까지 가봤는데... 안식구는 정신 좀 차리고 며칠 쉬었다가 나하고 같이 바람

도 씌자고 위로해주고, 오히려 내 걱정하고... 맨 날 성질내던 사람이 그때 나를 위로해 주는 거여....(6).

바닷가도 가보고 산에 올라가서 몇 번 죽으려고도 해봤어요. 어린애기 생각하면 저 아이가 나 없으면 어떻게 헤쳐 나갈까. 내가 없어지는 게 나을까.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얘기한번 본다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자살 생각이 녹아버려요(6).

④ 의지력을 발휘함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도박중독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다양한 생활 사건들이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만두겠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지력은 평소의 성격적인 부분과 도박중독으로부터 빠져나와야한다는 강한 자각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경만하고 안 해요. 그때부터는 구경하고 시간되면 집에 가버리고. 그때 상황에서 제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제가 끊고 뺏음은 너무나 정확해요. 매사에 그래요. 성격으로 봐야 되요(2).

건강이 나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는 안 줄어지더라고요. 스스로 의지가 있어야지, 제 의지로 극복했어요(7).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전략은 중심현상이 맥락적 조건 안에서 존재하거나 특정한 조건 하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현상을 다루고 조정하여 수행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목적을 지니는 목표 지향적인 속성을 의미한다(Strauss and Corbin, 1990). 즉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자금의 흐름을 막기', '도박유혹 자르기', '관심 돌리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자금의 흐름을 막기

연구 참여자들은 자금이 떨어지지 않는 한 도박을 멈추기는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돈 관리를 자신이 하기보다는 부인한테 맡겨서 하는 쪽을 택하고 있었다.

저 같은 경우 주머니에 돈을 안 가지고 다녀요. 돈 있어도 안식구 주어버리니까 없어요. 상가 집 갈 때 부주 돈 달라고 하면 받아 가지고 가요(6).

나도 잃으면 집에 가서 500만원만 주라. 1000만원만 주라. 그러면 각시는 싸매고 안주죠. 저는 경제권은 저는 필요하면 돈은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일단 관리는 안식구가 다해요. 나한테 맡기면 난리 난다고(2).

② 도박유혹 자르기

연구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도박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에게 도박친구들로부터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도박친구와의 만남을 자제하고, 도박기

회를 피하고 도박시간을 피하기 위해 낮에 몸을 혹사시켜 밤이면 바로 잠에 빠지도록 생활유형을 바꿈으로서 도박유혹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도박대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일에 몰두하고, 종교에 몰입하는 등 관심을 돌림으로서 도박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었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접하기도 하는데, 우연찮게 어디 사무실 같은데 오픈하는데 가보자 그러면 우연찮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요. 지금은 그 자리를 빨리 뜨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사하고 나 약속 있다. 나 처갓집 가야한다. 며칠 있다 보자. 그리고 전화번호를 자꾸 바꾸죠(6).

산에 가서 서 너 시간 보내버리면 일찍 자고 -중략- 시간 타임이 딱 맞아야 코도 맞고 노름하는 사람들 만나지는데... 도박관하고 타이밍이 잘 안 맞으니까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해지더라고요(7).

③ 관심 돌리기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에 몰입했던 에너지를 산을 다니거나 골프를 치는데 쏟는다. 일에 몰두하고 종교에 몰입하면서 도박에서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골프 쪽으로 돌렸어요. 골프를 9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프가 너무 재미있어요. 골프모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상을 살고 있죠. 너무 좋고 적성에도 맞고(5).

주변 산을 다녔어요(1,7).

사업이 바빠지고 영업이 잘되니까 재미있어서 저절로 끊어지고, 일에 맛이 붙어지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못 끊어요. 나는 할 일이 있으니까 끊어지지(3).

지금도 초점이 온통 새벽기도에 있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가야겠다. 최고의 관심이에요. 삶의 중심이에요. 거기에 맞춰야 사업도 번성하고 확신도 있고(4).

(6) 결과

본 연구에서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의 결과는 '가족이 힘이 됨', '성숙해짐', '자유로워짐'으로 나타났다.

① 가족이 보임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을 중단하기 이전까지는 가족이 보이지 않았다. 부인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소연해도 소용없고 자식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도박을 중단하면서부터 가족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족이 흠어지지 않고 남아 있음에 감사하고 자신을 품어준 가족이 있어 힘이 난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헤어졌다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내 집은 아니지만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힘이 나요(6).

큰돈은 못 벌지만은. 리어카 장사를 하더라도 우리 가정을 지키면 되잖아요. 생각이 많이 건전해졌어요(5).

② 성숙해짐

연구 참여자들은 지금까지의 삶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3은 남은 삶을 타인을 위해 살아가면서 삶의 보람을 찾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남은 삶이 결코 헛되지 않게 살고 싶다고 했다.

저는 지금 번성이 되고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을 위해 이 몸을 던져서 해외로 나가서 선교활동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나를 위해 돈을 쓰지 말아야겠다. 돈을 벌되 내 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거예요(4).

③ 자유로워짐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 도박을 오락으로 시작했다가 중독에 빠졌고 이제는 다시 오락으로 돌아왔다 고 했다. 똑같이 오락이라고 불리우지만 도박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온 이후의 오락은 처음의 오락과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하였다. 지금의 오락수준이 어느 날 도박중독으로 갈 수 있지만 처음만큼 쉽게 도박중독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제 도박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도박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 도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했다.

보고도 안할 수 있고, 하자고 해도 안 해요. 다만 동창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할 때는 친구들과하고 어울리려고 합니다. -중략- 친구들 만나면 같이 놀았으니까 같이 부담하잖. 승패만 가리고 희열은 떨어 지지만, 소주한잔하고 같이 부담하고, 이긴 것으로 만족하구요. 사무실에서 노는 것도 다만 몇 만 원 선에서 딱 사람이 맥주 한 잔 사고...(1)

마음이 불 같이 일어나거든. 조금만 있으면 할 텐데. 도박판 보기만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쳐다보면 미치는 거야. 지금은 봐도 덤덤해요(4).

2)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

(1) 핵심범주 : '대박의 꿈을 포기하고 자유로워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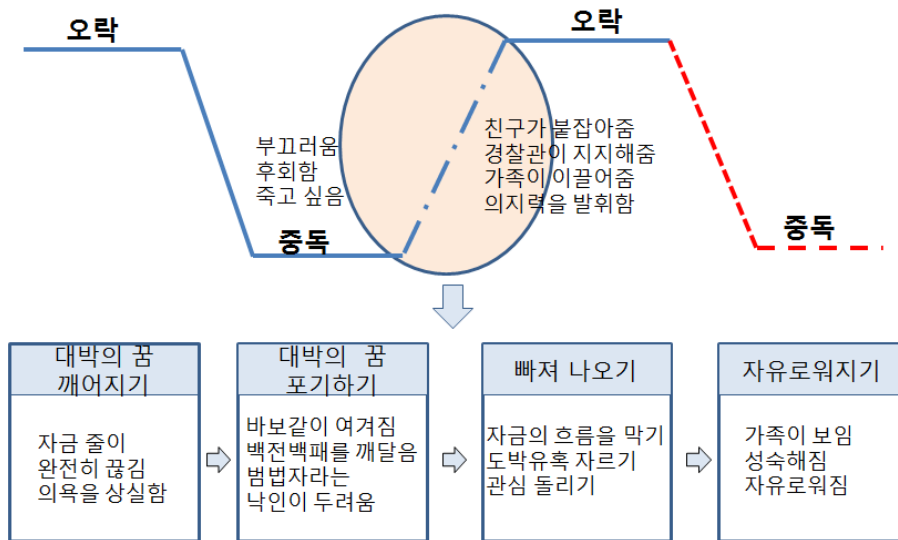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의 핵심범주는 '대박의 꿈을 포기하고 자유로워지기'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자들은 늘 대박을 꿈꾼다. 자금줄이 완전히 끊기게 되면서 도박으로 인해 이혼을 당하고, 전 재산을 날리고, 건강을 잃는 등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동료 도박자들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대박의 꿈이 깨지게 된다. 도박을 하는 동안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스스로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돈을 잃을 때마다 다시는 안할 것을 다짐한다. 빚에 쫓겨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최후로 자살을 생각한다. 또한 도박중독자들은 사기도박을 경험한 후 자신의 행동을 바보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결코 도박에서 돈을 딸 수 없음을 깨닫는다. 불법 도박으로 경찰관에게 잡혀가게 되면 낙인찍히기 때문에 이를 몹시 두려워하며 큰 도박에서 손을 뗀다.

대박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전략으로는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해 부인의 도움을 요청한다. 도박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박친구의 만남을 자제하고 도박할 기회를 피하며 저녁시간엔 잠이 오도록 하기 위해 산에 다니며 낮에 몸을 혹사시키는 등 생활 유형을 바꾼다. 도박에 대한 잡념을 없애기 위해 운동을 하고, 산에 다니고, 일에 몰두하고 적극적인 종교 활동 방법을 선택한다. 이러한 전략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피폐해진 상황에서 친구가 도와주고 경찰관의 지지를 받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가족이다. 특히 부인이 손 내밀어 주고 자식이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자살의 위기를 넘기기도 한다. 또한 도박중독자들의 빠져나오고자 하는 강한 의지력이 한 몫을 한다. 그 결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 가족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타인을 향한 삶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어 한다. 과거의 시련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현재를 열심히 살고 싶은 성숙해진 자신을 느낀다. 그리고 도박으로부터 손을 떼고 오락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도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낀다.

(2)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

도박중독은 과정적이고 진행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2>는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으며 언제든지 오락수준에서 다시 중독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빠져나오는 과정을 점선으로 표시한 이유는 잦은 실패를 의미한다. 즉 빠져 나오는 과정은 한 번의 결심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지속적이고 불규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대한 분석

① 1단계 : 대박의 꿈 깨어지기

이 단계는 도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단계이다. 그 이유는 자금이 완전히 끊김으로써 그리고 가족, 전 재산, 건강 등을 잃음으로써 의욕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는 우울함이 극에

달해 자살을 꿈꾸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1은 친구가, 연구 참여자6은 부인이 따뜻하게 품어줌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개입은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② 2단계 : 도박의 꿈 포기하기

이 단계는 도박을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을 굳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그마한 관심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기도박의 상황을 포착하면서, 그리고 불법도박으로 인해 범법자로 낙인찍히면 영원히 사회에서 낙오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만두고자하는 결심이 강하게 일어난다. 연구 참여자3은 바로 전에 해오던 일에 몰입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중독전문가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③ 3단계 : 빠져나오기

이 단계는 실질적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각자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한다.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가족 혹은 치료자의 도움이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이는 단계이다. 중독전문가는 개인, 가족,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4단계 : 자유로워지기

이 단계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단계이다. 성공적인 회복이란 단순한 중독행동의 중단만이 아닌 긍정적인 행동유형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기술과 생활패턴의 발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다른 놀이 문화를 찾고, 오락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도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단계에서 두 가지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전혀 도박에 손을 대기 않는 경우와 큰 도박에서 벗어나 오락수준으로 즐기는 경우가 있다. 완전히 손을 떼 경우는 조금 안심할 수 있지만 오락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늘 경계해야 한다. 오락에서 언제든지 중독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계는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차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의 유형

본 연구를 통해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대한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상위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도전형', '즐김형', '과시형', '집착형'의 네 가지로 파악되었다.³⁾

3)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대한 유형은 가설적 관계를 정형화해보고, 가설적 관계진술문을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관계상 이 부분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표 1>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대한 유형분석

구분	상위범주	속성	차원	도전형	즐김형	과시형	집착형
연구참여자				1,2,5	4,7	3	6
인과적 조건	자급증이 완전히 끊김	정도	심함/약함	약함	심함	약함	심함
	의욕을 상실함	정도	심함/약함	심함	약함	심함	약함
맥락적 조건	부끄러움	정도	많음/적음	많음	적음	적음	적음
	후회함	정도	심함/약함	심함	약함	약함	약함
	죽고 싶음	정도	강함/약함	강함	약함	약함	강함
중심현상	대박의 꿈을 포기함	기간	지속적/일시적	지속적	일시적	지속적	일시적
중재적 조건	친구가 붙잡아줌	정도	강함/약함	강함	약함	약함	약함
	경찰관이 지지해줌	정도	많음/적음	많음	적음	적음	많음
	가족이 이끌어줌	정도	강함/약함	약함	약함	강함	강함
	의지력을 발휘함	정도	강함/약함	강함	약함	강함	약함
작용/ 상호	자금의 흐름을 막기	기간	지속적/일시적	지속적	지속적	지속적	지속적
	도박유혹 자르기	강도	강함/약함	강함	약함	강함	약함
작용전략	관심 돌리기	정도	강함/약함	강함	강함	강함	약함
결과	가족이 보임	정도	많음/적음	많음	적음	많음	많음
	성숙해짐	정도	많음/적음	많음	많음	많음	많음
	자유로워짐	정도	많음/적음	많음	많음	많음	많음

(1) 도전형

이 유형은 호기심이 많고 도전하기를 좋아한다. 한번 시작하면 무엇이든 몰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교적 잃기보다는 따는 경향성을 보이며 바닥까지 가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1의 경우 새로운 일에, 연구 참여자 2, 5의 경우 골프에 도전함으로써 도박중독으로부터 빠져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의지가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박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2) 즐김형

이 유형은 도박의 스틸을 즐긴다. 연구 참여자4의 경우 돈을 잃으면서도 도박을 굉장히 즐긴다. 연구 참여자7의 경우 공무원 신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30년 동안 도박을 즐겼다. 이러한 유형은 도박 유혹을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연구 참여자4의 경우 교회에서 즐거움을 찾음으로써, 연구 참여자7은 골프에서 매력을 느끼었기 때문에 도박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박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3) 과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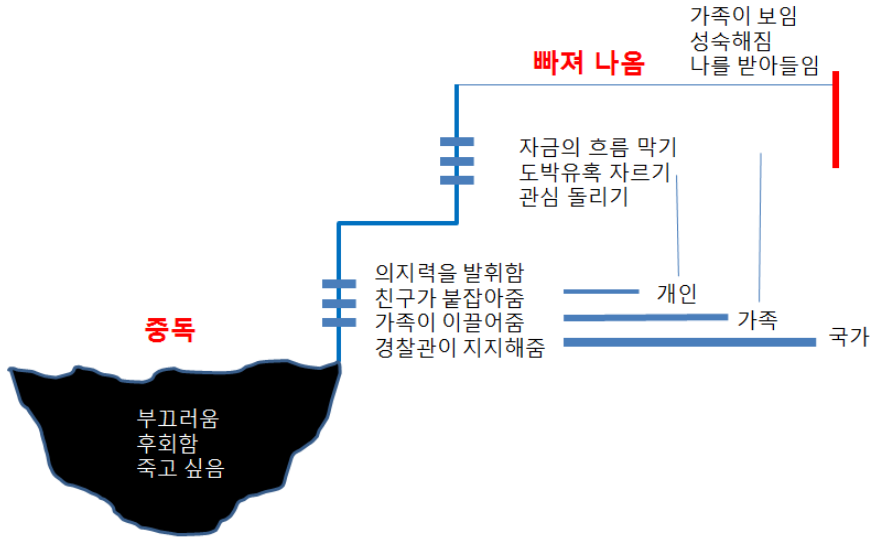
이 유형은 재산이 많은 경우이다. 연구 참여자3의 경우 돈이 많음을 과시하려다가, 기죽지 않으려다가 하루 밤 사이 몇 천 만원씩을 잃는다.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사기도박임을 깨닫고 중단을 결심한다. 이 유형은 도박을 즐기기보다 돈 많음을 과시하려는 내면의 보상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돈을 잃고 나면 다시 돈 버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면 도박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4) 집착형

이 유형은 가장 비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그리고 잃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까지 간다. 연구 참여자6의 경우 잃은 것을 찾아야 자신의 마음이 풀리기 때문에 잃은 돈을 반드시 도박을 해서 꼭 만회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리고 일하기를 싫어한다. 연구 참여자6의 경우 부인이 이해하고 안아줌으로서, 경찰관이 지지해 줌으로써 도박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유형은 의지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과 공권력의 도움이 필요하다.

4)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의 상황모형

대박에 대한 꿈이 자꾸 도박에 말려들게 한다. 돈을 잃을 때마다 그만둘 것을 다짐하지만 도박으로 피해보니까 도박으로 풀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겨 점점 수렁에 빠지고 만다. 나중에는 빚 갚을 돈만 따면 그만두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의욕을 상실하고, 불법도박자의 명단에 오름으로서 대박의 꿈을 접게 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그림 3〉). 도박중독자들이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개인, 가족 및 친구, 사회 및 국가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차원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및 부끄러움과 같은 자각의 요소와 강한 의지와 같은 개인특성요인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도박유혹을 자르기 위해 도박친구와 멀리하고 도박시간대를 피하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가족 및 친구 차원에서는 가족이 이끌어주고 친구가 붙잡아주었다. 국가차원에서는 불법도박에 대한 경찰관의 단속이 이루어짐으로써 도박중독자들을 통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도박중독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금의 흐름을 막고, 도박유혹을 자르고, 관심을 돌림으로서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 결과 가족의 소중함이 보이고, 성숙해지고, 도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림 3〉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대한 상황모형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발견한 패러다임, 과정, 유형, 상황모형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과적 조건에서 대박의 꿈을 포기하는 출발점이 자금의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이 자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도박을 중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금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다시 도박에 빠져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신건강전문가들이 도박중독자들에게 개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주변에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금 출만 막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도박중독자의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데 전력이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의 회복과정과는 다른 독특한 회복의 출발점이며 도박행동 자체가 경제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맥락적 조건에서 볼 때 도박행위에 대해 반복되는 후회와 자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각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은 TV에서 도박중독 실태가 방영됨으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해 도박중독 실태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도박중독자를 위한 사회적 자원이 형성되어도 사회적 편견에 의해 소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증심현상과 핵심범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박에 대한 꿈을 포기'할 때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올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 이유는 다른 중독과 달리 도박의 고유한 동기는 돈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갈망이기 때문이다(Custer, 1984; Herscovitch, 1999). 본 연구에서 대박의 꿈을 포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스스로 대박에 대한 기대가 비합리적임을 자각하는 일과 범법자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다. 특히 후자는 알코올중독자나 게임중독자들과 달리 범법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도박중단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Yaffee 외 2인, 1993)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화투나 카드 등의 불법도박을 하는 사람들로써 한번 경찰관에 의해 연루되면 사회의 영원한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것은 결국 도박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강력한 힘 중의 하나가 법적인 제재와 경제적 제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는 제도적 차원에서 불법도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본 연구의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와 과정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자유로워졌다는 개념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었다. 하나는 완전히 도박에서 발을 빼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오락수준으로 즐길 수 있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도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때문에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도박중독자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회복한 사람들로 간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Abbot et al., 1999)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도박을 중단하는 것이 반드시 그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행연구결과(Federman, Edward, Charles, Drebing, and Krebs, 2000)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도박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도박중독자들에게 개별화된 재발예방 서비스(relapse prevention program)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자발적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향후 중독전문가들의 적절한 개입시점을 찾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단계별 개입전략을 위해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도박중독자들은 공식적인 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 않지만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박중독자들에게 자연적인 치료 프로그램은 매력적일 수 있다(Toneatto and Ladouceur, 2003, Toneatto and Ladouceur, 2004). 따라서 아직 도박중독자들을 위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치료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발적으로 회복을 시도하는 도박중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여섯째,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의 유형에는 도전형, 즐기형, 과시형, 집착형 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개입전략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들 유형 모두 자발적으로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자들과 달리 도박중독자들이 치료접근성 및 공식치료율이 더 낮다는 특성(Abbot et al., 1999)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자발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

있던 전략과 요인들은 향후 도박중단을 위한 개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일곱째, 상황모형을 보면 개인, 가족 및 친구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기존의 선행연구결과들(손덕순·정선영, 2007; Hodgins and El-Guebaly, 2000; Hodgins, 2001)과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도박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가족이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 도박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개입 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박중독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치료 및 상담과 지지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단도박 모임(GA)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역적인 밀집성이나 비익명성의 지역문화, 단도박 모임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취약한 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Rosecrance, 1988). 도박중독자들이 서울 및 경기, 강원, 부산지역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제외하고 전문적인 도박중독치료·재활 서비스가 부재한 현실에서 단도박 모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단도박 모임의 활성화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여성도박중독자들의 독특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여성도박중독자들의 회복과정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추후연구에서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도박수단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도박중독 치료를 받지 않은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도박중독치료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여 그 특성과 차이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도박중독에서 빠져나온 이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어떤 요인에 의해 다시 도박중독에 빠지게 되는가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하여 본 연구와 비교논의 한다면 이론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 도박중독에 대한 실재적 지식체계 구축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교현. 2003. “병적도박자의 심리적 특성 및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건강』 8(2): 261-277.
- _____. 2003. “병적도박 선별을 위한 K-NODS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8(3): 487-509.
- _____. 2007. “중독, 그 미궁을 헤쳐나가기”.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2(4):677-693.
- 김수지·신경림 역. 1996. 『근거이론의 이해』. Strauss, Anselm L., and Juliet M.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grounded theory. 한울아카데미.
- 김영훈·이영호. 2004. “도박열정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 임상』 23(4): 999-1009.
- _____. 2006. “병적도박자의 단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한국 심리학회지 : 임상』 25(3): 697-710.

- 김정연. 2005. “병적도박자의 회복(recover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실천연구회 중독분과 역. 2006. 『도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도박중독자 가족을 위한 지침서』. Federman, Edward J., Charles E. Drebing, and Christopher Krebs. 2000. *Dont Leave It to Chance*. 도서출판 하나의학사 경찰청. 2010. 2009년 경찰백서
- 손덕순·정선영. 2007. “도박중독자 실태 및 중독수준별 특성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377-407.
- 송진아. 2009. “도박중독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진현. 2002. “병적도박 환자 배우자의 스트레스 지각과 대응전략”.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태균 역. 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Padgett, D. K. 1997.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 challenges and rewards*. 나남출판.
- 윤명숙. 2003.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의 부부관계증진을 위한 집단치료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6:119-155.
- 이민규·김교현·김정남. 2003. “도박중독 실태와 도박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8(2):399-414.
- 이인혜. 2004. “카지노게임 선호 유형, 성별, 도박 심각성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충동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9(2): 351-378.
- 이홍표·김대진·성상경·양익홍·고효진. 2000. “병적도박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 『신경 정신의학』 39(1): 46-54.
- 이홍표. 2003. “도박동기와 병적도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8(1) 169-189.
- 최완철·김경빈·오동렬·이태경. 2001. “한국형 사우스오크 병적 도박 검사 표준화에 대한 예비연구”. 『중독정신의학』 5(1):46-52.
- 한국마사회. 2010. 전국민대상 도박 이용실태 유행률 조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분석 및 총량조정연구.
- Abbott, D. A., S. L. Cramer, and S. D. Sherrets. 1995. “Pathological gambling and the family: Practice implications.” *Families in Society* 76(4): 213-219.
- Abbott, D. A., M. Williams, and R. Volberg. 1999. *Seven years on: A follow-up study of frequent and problem gamblers living in the community*. Wellington: New Zealand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text version)*. Washington, DC.
- Avery, L., and Diane R. Davis. 2008. “Women’s Recovery from Compulsive Gambling: Formal and Informal support.”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in the Addiction* 8(2):171-191.
- Błazczyszynski, A. P., and N. McConaghy. 1994. “Criminal offenses in Gamblers Anonymous and hospital treated pathological gambler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0(2):99-127.
- Boyd, W. H. 1976. *Excitement: The gambler’s drug*. In *Gambling and Society*, W. R. Eadington, ed. Springfield, IL:Thomas
- Brown, R. I. 1986. “Arousal and sensation seeking components in the general explanations of gambling and gambling addi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 21: 1001-1016.
- Brownell, K. D., G. A. Marlatt, E. Lichenstein, and G. T. Wilson. 1986. “Understanding and

- preventing relapse." *American Psychologist* 41: 765-782.
- Coombs, R. H. 2004. *Handbook of addictive disorders: A practical guide to diagnosis and treatment*.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Crockford, D. N., and N. El-Guebaly. 1998. "Psychiatric comorbidity in pathological gambling: A critical review."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3: 43-50.
- Cunningham-Williams, R. M., L. B. Cottler, W. M. Compton, and E. L. Spitznagel. 1998. "Taking chances: Problem gamblers and mental health disorders-Results from the St. Louis Epidemiological Catchment Area(ECA)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7): 1093-1096.
- Custer, R. L. 1984. "Profile of the pathological gambler." *Journal of Child Psychiatry* 45: 35-38.
- Grant, J. 2007. "Rural women's stories of recovery from addiction." *Addiction Research & Theory* 15(5): 521-541.
- Herscovitch, A. G. 1999. *Alcoholism and Pathological Gambl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lorida: Learning Publications, Inc.
- Hodgins, D. C., and N. El-Guebaly. 2000. "Natural and treatment-assisted recovery from gambling: A comparison of resolved and active gamblers." *Addiction* 95(5): 777-789.
- Hodgins, D. C. 2001. "Process of changing gambling behavior." *Addictive Behavior* 26: 121-128.
- Jacob, D. F. 1989. "Special issue: Gambling and the family." *Journal of Gambling Behavior* 5(4): 261-268.
- Jacques, C., R. Ladouceur, and F. Ferland. 2000. "Impact of availability on gambling: A longitudinal stud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5(9): 810-815.
- Klingemann, H. 1992. "Coping and maintenance strategies of spontaneous remitters from use of alcohol and heroin in Switzer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 27: 1359-1388.
- Koski-Jännes, A., and Turner, N. 1999. "Factors influencing recovery from different addictions." *Addiction Research* 7(6):469-492.
- Larkin, M., and M. D. Griffiths. 2002. "Experiences of Addiction and Recovery: The case for subjective accounts." *Addiction Research & Theory* 10(3): 281-311.
- Lesieur, H. R., and R. J. Rosenthal. 1991. "Pathological gambling :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Gambling Studies* 7: 5-39.
- Lesieur, H. R., and S. B. Blume. 1991. "Evaluation of patients treated pathological gambling in a combined alcohol, substance abuse, and pathological gambling treatment unit using the Addiction Severity Index."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6: 1017-1028.
- Lorenz, V. C., and D. E. Shuttlesworth. 1983. "The impact of pathological gambling on the spouse of the gambler."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67-76.
- Lorenz, V. C., and R. A. Yaffee. 1986. "Pathological gambling: Psychosomatic, emotional and marital difficulties as reported by the gambler." *Journal of Gambling Behavior* 2(1): 40-49.
-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 *Pathological Gambling : A Critical Review*.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Rosecrance, J. 1988. "Active gamblers as peer counselor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 23: 751-766.

- Shaffer, H. J., M. N. Hall, and J. Vander Bilt. 1999. "Estimating the prevalence of disordered gambling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 research synthesi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9): 1369-1376.
- Sobell, L. C., T. P. Ellingstad, and M. B. Sobell. 2000. "Natural recovery from alcohol and drug problems: Methodological review of the research with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Addictions* 95: 749-764
- Stewart, C. 1999. "Investigation of cigarette smokers who quit without treatment." *Journal of Drug Issues* 29: 167-186.
- Stewart, R. M., and R. Brown. 1988. "An outcome study of Gamblers Anonymou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2: 284-288.
- Stinchfield, R. D., and K. C. Winters. 1996. "Treatment Effectiveness of Six State-Supported Compulsive Gambling Treatment Programs in Minnesota." Minneapolis: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Minnesota.
- Toneatto, T., and R. Ladouceur. 2003. "Treatment of pathological gambling: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 17: 284-292.
- Toneatto, T., and G. Miller. 2004.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problem gambling: Empirical status and promising trend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9: 173-181.
- Toneatto, T., J. Cunningham, D. Hodgins, M. Adams, N. Turner., and A. Koski-Jännes. 2008. "Recovery from problem gambling without formal treatment."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6(2):111-120.
- Yaffee, R., V. Lorenz, and R. Politzer. 1993. Models explaining gambling severity among patients undergoing treatment in Maryland: 1983-1989, pp. 657-677 in *Gambling Behavior and Problem Gambling*, W. R. Eadington and J. A. Cornelius, eds. Reno: University of Nevada.
- Winters, K. C., P. Bengston, D. Dorr, and R. D. Stinchfield. 1998.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problem gambling among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2(2): 127-135.

Recovering Process from Gambling Addiction

Yoon, Myeong-So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ae, Wan-So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entity theory on the recovering process from gambling addiction. This study focused on "What is the process of getting out of the pit of gambling addiction?" based on grounded theory methodology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1990).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 male gambling addicts living in Jeonbuk area.

As the result of this study, a total of 97 concepts were drawn, which were classified into 28 subcategories and 16 superordinate categorie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ategories by paradigm showed that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gambling addiction, the casual condition was 'Being cut off money; 'Losing the will', and the contextual condition corresponding to this phenomenon was 'Shame', 'Repent', and 'Wanting to die'. The core phenomenon was 'Giving up the dream of hitting the jackpot'. The intervening condition to boost this core phenomenon was 'Being helped by friends', 'Being supported by the police', 'Being led by the family', and 'Showing the willpower'.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identified as 'Cutting off the flow of funds', 'Overcoming the temptation of gambling', and 'Diverting attention to other things', ending up 'Being conscious of family', 'Growing up', and 'Being free'. The core concept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gambling addiction was revealed as 'Being free by giving up the dream of hitting the jackpot'. The process of getting over the gambling addiction was 'The dream of hitting the jackpot being shattered', 'Giving up the dream of hitting the jackpot', 'Getting out of it', and 'Being free'. The study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Challenging type', 'Enjoying type', 'Showing off type', and 'Obsessive type'. This study was expected to have significance in establishing the first theory in Korea on the recovering process of gambling addict

Key words: gambling addiction, recovering process, ground theory, qualitative study.

[논문 접수일 : 10. 04. 15, 심사일 : 10. 04. 29, 게재 확정일 : 10. 05. 23]

【부 록】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에 대한 개념의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돈이 없어 냉방에서 잠, 번 돈 다 까먹음, 서서히 죽어감, 아무것도 없음, 거지가 됨	빈털터리가 됨	자금줄이 완전히 끊김	인과적 조건
부인을 협박함, 자살소동 벌임, 집안 살림 내다 팔음, 부인 몰래 대출 받음, 돈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함	돈 구하는 데 혈안이 됨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음, 전 재산을 날림, 건강이 악화 됨	소중한 것을 잃음	의욕을 상실함	
도박자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봄	비참한 최후가 두려움		
친구한테 창피함, 애기 핏덩이 옆에 놓고 함, 징역 갔다 오면 창피함, 공직자로 양심의 가책을 느낌, 부인이 자살소동 벌임, 생활이 개판임을 자각함, 부부간에 자주 싸움	사람이 할 것이 아님을 깨달음	부끄러움	맥락적 조건
잃는 순간 안하기로 결심함, 각서를 씌, 잃을 때마다 후회함, TV를 보고 반성함	안하기로 맹세함	후회함	
사라지고 싶었음, 빗지니까 우울함, 무시당함, 빗쟁이를 죽이고 싶음	우울함	죽고 싶음	
속임 수입을 깨달음	바보 같이 여겨짐	대박의 꿈을 포기함	중심 현상
사기도박 순간을 포착함, 큰 놀음 안해짐, 딸 확률이 적음을 깨달음, 꿈을 꾀	백전백패를 깨달음		
학교(징역) 갔다 오면 쪽팔림, 명단 올라감	범법자라는 낙인이 두려움		
친구가 이끌어줌	친구가 도와줌	친구가 붙잡아줌	중재적 조건
경찰관이 관심 가져줌	경찰관의 관심을 받음	경찰관이 지지해줌	
안식구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줌, 마누라가 전화 안 바꿔줌, 부인이 기분전환 시켜줌, 안식구가 위로해줌, 반성의 시점에서 내민 손잡음, 부인이 도박하면 안 산다고 말함	부인이 내민 손을 잡음	가족이 이끌어줌	
자식을 보면 죽고 싶은 마음 녹아내림	아들 생각하며 자살생각 접음		
끊고 맺음이 정확함, 의지가 중요함, 의지력으로 극복함	의지가 강함	의지력을 발휘함	
돈을 안가지고 다님, 안식구가 돈을 관리함,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을 가족이 관리함	자금 관리에 도움을 받음	자금의 흐름을 막기	작용/상호작용 전략

도박친구 안 만남, 사회모임을 탈퇴함, 안 어울리려고 함, 건전한 사람들을 만남	도박친구 만남을 자제함	도박유혹 자르기	
하루 벌어 하루 산다고 말함, 부르면 일 있다고 말함, 전화번호를 바꿈, 약속 있다고 말함	도박기회를 피함		
도박시간대에 잠들기	생활유형을 바꿈		
골프가 좋음, 골프에 관심을 가짐, 등산으로 육체를 혹사시킴, 산을 다님	운동을 함	관심 돌리기	
할 일이 있음, 일에 전념함	일에 몰두함		
새벽기도 나감, 교회 열심히 다님	종교에 몰입함		
부인이 귀엽다고 말해줌	가족이 품어줌	가족이 보임	결과
가족에게 잘하고 싶음, 리어카라도 끌어 가족을 지키고 싶음,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음, 아들과 대화 많이 함, 가족이 떠나지 않아 다행임	가족을 지키고 싶음		
해외 선교활동 하고 싶음, 좋은 아파이고 싶음, 보람 있게 사업을 함, 나만을 위한 돈 벌기를 멈춤	보람 되게 살고 싶음	성숙해짐	
과거 시련을 수용함, 버린 만큼 깨달음, 두 얼굴로 살았음을 반성함	나를 깨달음		
맥주한잔 내기함, 따도 다 내 놓음, 놀이만 함,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음, 심심풀이로 함, 의지대로 절제할 수 있음, 잃어도 집착 안함, 통제가 됨, 가볍게 상갓집 가서 함	오락으로 즐길 수 있음	자유로워 짐	
보고도 안함, 유혹에 안 빠짐, 돈이 있어도 안함, 도박판 봐도 덤덤함, 구경도 하기 싫음, 도박하지 말자를 가훈으로 만들, 장례식장 가서도 안 만짐	완전히 받을 뻔		